

목 차

1-1	하나님 나라의 삶과 신앙 - 신앙의 여정과 성장과정	1
1-2	하나님 나라 - 주님의 소망	4
1-3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 왜 십자가입니까?	7
1-4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 주기도문	10
1-5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 아인슈타인의 영적 상상력	13
1-6	하나님 나라와 교회 - 아름다운 교회	16
1-7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 공동체의 의미	19
1-8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교제 - 가슴 벅찬 화목제의 삶	22
1-9	하나님 나라의 기초 -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24
1-10	하나님 나라와 생명사랑 -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27
1-11	하나님 나라와 제자 - 제자란 무엇입니까?	30
1-12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 사랑의 섬김	33

1-1. 하나님 나라의 삶과 신앙 - 신앙의 여정과 성장과정

단편화된 삶 :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편화"라고 합니다. 삶이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어느 한 조각만 기독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독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삶의 차이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삶이 동반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삶을 점검하는 신앙 :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당연히 '삶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에 빠져 가치와 목적의 상실 : 물질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도덕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은 물질입니다.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 하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영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각 나라의 행복 지수가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6개국의 행복 지수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질의 풍부함을 얻었지만 그 대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까? 가족, 친척들과 친구들, 가장 소중한 신앙도 잃었습니다. 우리

는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한 일에서 만나는 분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 속에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 -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그림의 이야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십시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질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 기독교인들의 이분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삶과 교회 밖에서 삶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 2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써 삶을 사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삶은 나누면서 이야기 해봅시다.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물질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야기 해봅시다.

질문 4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 고흐의 삶을 참고 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질문 5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써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2. 하나님 나라 - 주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삶에 대한 다짐을 할 때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터전 :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여러 기도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터전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①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기도의 첫 제목이었습니다. ②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③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우리 찬송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 찬송가에 나타나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나서 가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셨습니까? :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잘못된 관계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고통이 사라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서로 차이가 나고 다르더라도 서로 관심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라 나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더불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이제부터는 자신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은, 풀과 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있습니다.

질문 1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문 2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역(일)을 하고 있습니까?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말할수 있습니까?

질문 4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치점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5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겠다.

② 이렇게 행동을 바꾸겠다.

③ 이것을 시작하겠다.

1-3.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 왜 십자가입니까? (빌 3:8-10)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 성경의 주제들이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주제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력들은 배설물? : 세상의 노력들은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구원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인가? :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제거하기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문명의 혜택과 죄의 역사 :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더 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고통의 근원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근본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땅에 생겨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가 사람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사람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 된 인간의 근본을 영광의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영광스러운 결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관계에 대한 확증 :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확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부모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을 수 없는 죄의 세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십자가 :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요, 유대인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용기 있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 1 십자가를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질문 2 일상생활 중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떠한 때에 생각하게 되나요?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그리고 세상과 십자가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왜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질문 5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1-4.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 주기도문 (마 6:9-13)

주기도문 - 주님의 뜻과 소망 :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주님의 뜻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고, 성도를 향한 소망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척이나 깊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묵상할수록 더 깊은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기도할수록 주님처럼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주기도문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난 후에 기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소망 -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주기도문은 하나님,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구조상으로도 주님의 관심과 소망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이뤄지거나, 개인에게만, 또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롬14:17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참된 교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나라를 위해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우리”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등장하여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갖습니다.

- 성령이 임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가 태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행 4:32)”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고, 청지기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①**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식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양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식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②**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양식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죄 용서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받지 못 하고, 용서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용서하는 반드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③**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이제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한 기도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 권능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영광은 모든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까지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자 소망이며 기도입니다.

질문 1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질문 2 그것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봅시다.

질문 3 그 기도들이 응답된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그 결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4 주기도문의 내용 중 새롭게 다가온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질문 5 주기도문의 뜻과 소망대로 기도한다면 현재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고 함께 나눕시다.

1-5.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 아인슈타인의 영적 상상력 (엡 4:1-4)

신앙의 위기 - 신앙과 삶의 분리현상 :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누어진 신앙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에 신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야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모두가 좇는 세상의 가치관과 쉽게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어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생각할 볼 때에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이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 - 과학 정신 :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은 하나님 없는 과학 정신입니다. 이 과학에 기반을 둔 사회가 추구하고, 인정하는 것은 비판적,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논리는 분리의 논리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논리와 감정을 분리하고,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사람과 자연을 분리합니다. 이 분리현상은 한 공간에 있는 상대를 목적과 유익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대상(object)으로 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심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학의 등장 : 미국의 흑인 대통령 선출, 중국 인권 운동가의 노벨평

화상 수상, 제인 구달의 ‘희망의 자연’, 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과 미국 수도의 포토맥 강의 이야기, 중국의 북서부에 있는 황토 고원이야기 등 새로운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과학 자체가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과 달리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가 결코 기계가 아니고, 하나의 몸과 같은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우주와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분리에서 하나됨으로 : 처음에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던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정점에 올라온 시기인 193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과학은 진리와 이해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원천은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다가온다. 여기에 신앙이 속해 있다. 존재의 세상에 유효한 규칙들이란 이성적이며, 이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심오한 신앙 없는 순수한 과학자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명제를 남깁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지체부자유자요, 과학 없는 종교는 시각 장애인이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과학자의 모든 열정과 헌신은 신앙에서 다가오는 것이며, 과학은 결코 종교와 분리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이 화해하면 이제 모든 분야들, 철학, 문학, 예술, 경제, 정치도 하나님과 화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요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갈등하는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분리된 관계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서로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질문 1 ‘성령’ 또는 ‘성령의 역사’ 라는 말을 대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 2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삶에서 신앙과 함께 가기가 어렵거나 잘 되지 않는 영역 또는 관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신앙과 삶의 분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질문 4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 5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개인, 교회,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 차원)

1-6. 하나님 나라와 교회 - 아름다운 교회 (엡 4:13-16)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해 노력하는 교회 :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교회는 언제라도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방주’라고 말합니다. 이곳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러운 배설물, 악취들, 짐승의 소리들 등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힘들어서 나가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생명이 있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힘쓰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성경적 교회-몸으로서의 교회 : 주님의 제자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성도는 몸의 지체** :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께에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며, 평신도 역시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② **유기체적 교회** : 교회를 영어로 말할 때 ‘organism(유기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지체가 서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지체를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나 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할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organism’이 되지 않

고 ‘organization(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organization에서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사랑과 인격의 공동체가 아니라 일을 이루 어가는 ‘조직’이 되어 버립니다. 루엘 하우(Reuel L. Howe)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물건’은 이용하라고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 으면 반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느냐 하는 것입 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합 니다. 남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법,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법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③ **교회의 본질은 생명성** :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시대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때문입 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복음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에 따 라 새로운 교회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와 나 - 나의 인격, 신앙, 교회 :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우리의 인 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 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겸손을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합 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 회의 머리로 모시고, 지체들과 더불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제자의 삶을 살 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질문 1 “교회” 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2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중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중 어떤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본문에 근거하여 교회를 정의해 봅시다.

질문 4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세는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5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7.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 공동체의 의미 (눅 13:6-9)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 : 신정론(Theodicy)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사보다 오래된 주제입니다.

C. S. 루이스 (C. S. Lewis), 2003년 고생물학자 피터 월드(Peter D. Ward)와 천문학자 도널드 브라운리(Donald Brownlee) 『Rare Earth』 : “자연재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단결하게 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유 속에 담긴 가르침 -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감 : 눅13장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며 갈릴리 비밀결사단 적출 사건과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 붕괴로 죽은 18명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그들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급한 저들의 이면에는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하여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13:3,5) “이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결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모두 죄인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강력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 이해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듯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 분이고, 회복되

기를 바라는 분이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해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역설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의 고통과 나 : 갈릴리는 무화과나무이고, 예루살렘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 곳은 수도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어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축복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곳에서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나 못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자기 것을 나누기를 싫어한 포도나무는 생활에 필요한 공간, 양분, 햇빛, 물 등을 무화과나무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자 주인은 직접 찍어버리겠다며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이 땅에서 아이티 지진을 통해 진정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 아이티의 지진은 단순히 지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C. S. 루이스의 말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떨어져 단절된 채로 살았던 이웃들, 생명들을 이제는 우리가 품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이며, 그분이 주신 축복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돌보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할 세상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1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재난과 고난들 중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질문 2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질문 4 다른 이들의 재난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세상의 약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일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8.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교제 - 가슴 벅찬 화목제의 삶 (레 3:1-5)

아름다운 관계의 제사, 화목제 : 화목제가 아름다운 이유는 독특한 특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한 가족들도, 친구들도, 심지어는 이웃들도 불러와서 함께 예물을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즉 화목제는 음식이 있는 제사요, 교제가 있는 제사입니다. 음식을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되고, 깊어지는 자리가 “화목제의 자리”입니다. 화목제의 자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제사, 화목제 :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는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장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데렉 티드발(Derek Tidball)이라는 레위기 학자에 따르면 성경에서 기름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다른 하나는 힘입니다. 즉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움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아울러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풍성한 나눔의 제사, 화목제 : 화목제에는 새나 비둘기는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중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작은 예물들은 이웃과 나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 예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미래를 기대하는 제사, 화목제 :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다양한 이름들은 모두 “샬롬”(Shalom)에서 왔습니다. 화목제는 샬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제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틀리(Hartley)라는 신학자는 화목제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들 때문에 세워진 교

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이 땅에 샬롬(평화)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질문 1 화목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 2 성도의 교제와 화목제는 어떠한 면에서 연관성이 있나요?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화목제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며, “화목제의 자리” 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3가지 이상)

질문 4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지금 우리가 거하는 가정, 교회, 사회 가운데 화목제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1-9. 하나님 나라의 기초 -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살전 5:15-22)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 예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멸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기에 멸시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언을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도 이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날을 점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선순환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가?

- 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멸시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 “호텔에 놓인 물건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물건”의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텔레비전’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사회를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 ③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 대학 입시 위주의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을 ‘정복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경제 구도 내에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성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잘되는 것이 최고의 과제이고, 가치인 것처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예수 믿는 우리” :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성경을 존중하겠습니까?

종교개혁 = 하나님의 말씀 존중을 위한 개혁 :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말씀의 개혁입니다. 예배는 온통 의식이 중심되었고, 말씀은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루터는 개혁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 예배에서는 말씀이 항상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짓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집을 짓다가 부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노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지는 신앙의 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와 구조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장식들도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에 헌신해야 할 이유 = 세상의 구원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1 '하나님의 말씀' 은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질문 2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과 ‘세상의 보편적인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나누어봅시다.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4 ‘말씀의 집을 짓는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말씀의 집을 짓기 위한 세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하기 위한 말씀 사역 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나누어 봅시다.

1-10. 하나님 나라와 생명사랑 -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레 19:17-18, 마 5:43-48)

이웃 사랑에 담긴 생각 :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매겨진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므로 새롭게 거듭나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의 가르침 : 본문을 세부분을 나누어 보면 1)전통적 가르침-"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2)예수님의 말씀-"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3)악의 순환-"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중심 되는 가르침이며,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한 족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원수사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의 잘못된 이해와 행동 :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를 미워하였고 핍박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30년 종교 전쟁 동안, 불교 신자를 향해서도 이념이 다르면 무차별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자를 사랑하는 원수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 - 기독교 신앙이 주는 관계의 본질 :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생명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종교도, 이념도, 철학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사랑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은 비슷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당파, 편파, 족벌, 인종차별, 민족주의가 숨어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나 '이웃사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품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넘어 : 바라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비난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성과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라새인들에게 거룩함은 분리와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분리와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긍휼, 함께함 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 머물지 않고,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 :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세가지면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1)첫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2)둘째,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3)셋째,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원수 사랑 :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인에게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도, 원수도, 모든 생명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서의 원수 사랑 :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결단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뛰어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1 내 주위에서 “이웃 사랑” 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진정한 “이웃 사랑” 은 “원수 사랑” 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사랑” 의 가르침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전통적 가르침
- 2) 예수님의 말씀
- 3) 악의 순환

질문 4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써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질문 5 내 삶에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나누어 봅시다.

1-11. 하나님 나라와 제자 - 제자란 무엇입니까? (마 28:19-20)

제자란 무엇입니까? : 예수님의 목회에서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이었고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산상수훈과 지상명령 :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을 통한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고, 이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역인 제자 양육 :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만 계시는 것을 알았기에 지체함 없이 제자 훈련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이 구원의 사역과 복음의 메시지, 복음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이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의 4단계 : 주님께서 제자들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양육하셨는데, “①와보라 → ②나를 따르라 → ③나와 함께 있으라 → ④제자를 삼아라”라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불씨가 붙어야 합니다 : 왜 제자양육 사역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목회사역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의 본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열두제자만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는 열두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며 따라서 제자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 :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좋고, 뛰어난 사람들(인격, 성공, 훌륭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정말 저 분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이야, 헌신하시는 분이야.”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자기 일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화의 목적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와 일터에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소그룹을 통한 제자화 : 제자화를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만들고 매주일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을 통한 훈련이 없으면 신앙은 갈수록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전부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이 바로 제자를 만드시는 제자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통하여 14: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친구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1 제자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질문 2 당신이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 해봅시다.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무엇이고,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나누어 봅시다.

질문 4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 양육이 4단계를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헌신해야 곳은 어디인지 나누어 봅시다.

질문 5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치인 “의, 평강, 화락” 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나누어 봅시다.

1-12. 하나님 나라의 리더쉽 - 사랑의 섬김 (시 123:1-4, 요 13:4-7)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룩한 지도력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물고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차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참된 능력은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참된 의미의 지도력 -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 우리는 흔히 지도력이라는 말을 외형적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 권세, 돈,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지도력이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가 쓴 『동방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East)』에 나오는 리오와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 :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는 섬김의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지도력을 정리해보면, “겉옷을 벗으시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음의 모습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피고함과 죄를 모두 감싸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온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것, “물을 떠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 그들의 발아래 머리를 숙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듣고 아픔을 감싸주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상처 난 발을 감싸 주셨고, 비천한 발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따르도록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력의 최고 원리 : 지도력의 최고 원리는 사랑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사랑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기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왜 사랑해야 할까? : 그러나 생명을 사랑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같은 참된 사랑을 위해 뱀과 같은 강한 정신력과 비둘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도, 함께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적인 삶, 시간 사용, 언어 사용, 감정을 다스리는 법, 돈을 쓰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질문 1 그리스도인 리더는 어떠한 리더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을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그리스도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을 무엇일까요?

< 설교에 대한 정리 및 피드백 : 그룹 멤버들 중 >

질문 3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리더십을 정리해 봅시다.

질문 4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